

# 대순사상과 진여사상의 포덕과 교화에 관한 비교연구

김 용 환

충북대학교 · 교수

- |                         |                        |
|-------------------------|------------------------|
| I. 머리말                  | IV. 덕성함양과 봉사활동의 사회적 기여 |
| II. 대순포덕과 진여영능의 종교적 신념  | V. 맺음말                 |
| III. 대순교화와 접심인도의 윤리적 실천 |                        |

## I. 머리말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교화는 대순사상을 알고 믿게 하여, 도를 실천하고 대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개념이다. 대순사상은 ‘대순’과 관련하여 『서경(書經)』 「태서하(泰誓下)」<sup>1)</sup>에서, “그 다음 날 왕(王)이 육사를 크게 순행(巡行)하여 여러 군사들에게 분명히 맹세하였다(時厥明王乃大巡六師明誓衆士).”라고 소개한 사건과 연관된다.<sup>2)</sup> ‘순수(巡守)’는 천자(天子)가 천하를 주유하며 산천에 제사지내고 각지 민심 동향을 살피던 고대 풍습으로, ‘순수(巡守)’를 통해 토지개간, 전야(田

1) 성백효 역주, 『서경집전 하』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3), p.26.

2) 중국 주(周)의 군대 편제로서 천자가 통솔한 여섯 개의 군(軍)으로 1군이 12,500명 이기에 75,000명으로 산출된다.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3) 참조.

野)상태, 노인봉양, 현자존중, 인재등용 등을 살피고, 그 공과(功過)에 따라 봉토를 증삭(增削)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대순의 ‘순(巡)’에는 ‘천자가 백성들을 두루 살피 덕치를 베풀고자 하는 행위중심의 덕행의 뜻’이 담겨 있다.

또한 대순사상의 ‘사상(思想)’은 인식대상에 대한 사고(思考)를 지칭하지만, 대상을 이해하는 이성(理性) 작용을 지칭한다. 그 대상은 네 종류로 나뉜다. 첫째, 명확한 체계질서를 갖춘 이론, 둘째, 세계에 관한 관점이나 인생에 관한 여러 전망을 나타내는 세계관·인생관을 포괄하는 체계, 셋째, 일상생활에서 형성되는 견해, 넷째, 이성적(理性的) 성찰 이전의 생활감정, 생활무드, 의식지향(意識志向) 등을 말한다.

대순사상은 ‘대순(大巡)’은 원만(圓滿)으로, 우주의 신비(神秘)하고 미묘(微妙)한 진리(眞理)에 관한 사상이다. 과거 영성차원의 눈을 자각한 임금으로는 복희·단군·문왕(伏羲·檀君·文王)이 있었고, 정신세계의 스승으로는 공자·석가·노자·예수(孔子·釋迦·老子·耶穌)가 있었다. 근세에는 강증산 성사께서 대순의 진리를 밝히셨다.

대순은 일원(一圓)으로 걸리거나 막힘이 없고, 무궁무진(無窮無盡)하여 제한(制限)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無量)을 표상하며, 닫힌 세계를 끊임없이 열어가는 ‘개벽(開闢)’과 상관한다. 아울러 대순은 상극(相克)에서 상생(相生)으로의 변용이다.<sup>3)</sup> 증산상제께서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워리라. 예로부터 신선(神仙)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 자의 몸으로 오리라.”<sup>4)</sup> 고 다짐하며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마치시고 화천(化天)하셨다.

대순사상에 관한 연구는 『전경(典經)』과 『대순지침(大巡指針)』을 읽고 필사하고, ‘박학지·심문지·신사지·명변지·독행지(博學之·審問之·慎

3) 『대순회보』 2, p.1.

4) 『전경』, 행록 5장 25절.

思之·明辯之·篤行之)’하면서 시학·시법 공부를 비롯하여 도장의 수호·기도·치성·수강·연수에 이르기까지 ‘성지우성(誠之又誠)’의 태도로 임하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수도의 제반 규정을 필히 엄수(嚴守)하지만, 욕심을 앞세워 사된 방법으로 행하면 정기(正氣)는 물러가고 사기(邪氣)가 선동하여 허령(虛靈) 됨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주문한다.<sup>5)</sup> 대순사상을 통해서, ‘무량극락오만년(無量極樂五萬年)’의 ‘깨끗하고 번성한 세계(淸華之世)’로 인도하고 선행으로 교화하는 공공책임을 공유한다. 대순사상의 포덕·교화는 극성(極誠)·극경(極敬)·지신(至信)으로 해원상생을 실천하여 ‘일심(一心)’의 도통진경에 이르고자 한다. 해원상생 시대가 오면, 인류가 주역이 되어 타인을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일본 진여원(眞如苑)의 이또 신조(伊藤眞乘: 1906~1989) 진여사상은 대반열반경과 전등법맥(傳燈法脈)을 중시하며, 진여연기, 환희상승, 진여일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불도계통사상(佛道系統思想)이다. 진여원은 이또 신조가 1951년 개원하여, 이듬 해 문부성인증(認證)을 받았다. 2013년 통계에서, 진여원 신도 수는 1,023,891명이고, 귀의처는 ‘구원상주석가모니여래(久遠常住釋迦牟尼如來)’이다. 도쿄의 다치가와(立川)시에 진여불교 총본산, 진여원이 있으며, 소의경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다. 월간 『내외시보』, 계간 『환희세계』 등을 발행한다.<sup>6)</sup>

『열반경』은 석존(釋尊)의 최종유언(最終遺言)으로, 진여로 인도하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을 중시한다. 영능과 접심은 진여사상을 알고, 진여본성을 깨닫게 하는 수행으로 네 가지 법리를 제시한다. 첫째, ‘여래상주(如來常住)’로서, 여래는 법(法)으로 상주함이다. 둘째, ‘일체실유불성(一切悉有佛性)’으로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갖추고 있음이다. 셋째, ‘천제성불(闡提成佛)’로서 비록 선근종자(善根種子)가 끊어졌더라도 성

5) 『대순지침』, p.40 참조.

6) 신종교연구회, 『신종교 가이드』 (동경: 구천사, 2006), p.42.

불가능성은 열려 있음이다. 넷째, ‘상락아정(常樂我淨)’으로 진여일여를 깨달으면 일체의 번뇌·속박에서 해탈함이다.

또한 전등법맥이 ‘사제관계(師弟關係)’의 환희상승(歡喜相承)으로 이루어지고, 법등을 계승하며 교법(教法)을 전수한다. 진여영능(眞如靈能)은 이또 신조 가문의 ‘천령계영능(天靈系靈能)’과 쇼주 신인(攝受心院) 가문의 ‘지령계영능(地靈系靈能)’이 공공매개(公共媒介)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출가자나 재가자가 함께 구제받는 ‘진여삼매야류(眞如三昧耶流)’ 진여종(眞如宗)이 창안되었다. 『열반경』을 소의(所依)로 삼으며, ‘탐욕·성냄·어리석음(貪·瞋·癡)’의 삼독(三毒)을 ‘보시·자비·지혜’를 아우르는 육바라밀 실천으로 치유하고 세존의 깨달음과 열반, 해탈의 공덕을 공유한다. 『열반경』은 석존유교(釋尊遺教)로 이또 신조가 진여사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신념체계에서는 실유불성(悉有佛性)의 뿌리와, 발고대수(拔苦代受)의 줄기, 진여섭수(眞如攝受)의 열매로 전파한다.<sup>7)</sup> 진여발심을 일으켜 접심인연을 만나는 진여연기(眞如緣起)를 촉발하고 ‘사상(四相)’을 여원 이타실천으로 사람을 인도한다. ‘호마(護摩)’의식으로 청정심을 회복하고, ‘관정(灌頂)’의식으로 사제전승을 실천하고, ‘최승혜인삼매야법(最勝惠印三昧耶法)’의 삼밀가지를 체현한다. 또한 ‘금태양부법(金胎兩部法)’을 통해 진여영계의 인가를 획득한다. 아울러 진여영능과 접심상관의 환희상승(歡喜相承)의 ‘보시(布施)’를 중시한다. 환희상승으로 진여일여를 이루면, 자리소승(自利小乘)과 자리아타대승(自利利他大乘)을 공공(公共)으로 살려 ‘자타일여진여(自他一如眞如)’에 이른다. 이에 대순사상을 알고 믿게 하는 포덕·교화를 진여사상을 알고 깨닫게 하는 영능·접심과 비교하여, 종교 이타주의를 고찰한다.

7) 김용환, 「열반경의 열반과 이또 신조(伊藤眞乘) 불성사상의 상관연동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1(1) (2015), p.32.

## II. 대순포덕과 진여영능의 종교적 신념

### 1. 대순사상의 포덕

대순사상의 포덕은 상생의 덕을 세상에 널리 퍼서 지상선경을 이 땅에 구현하려는 대순이타사상에 근거한다. 포덕은 덕화의 선양으로, 이타의식의 선행이기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서 행동하면 덕화에 손상을 끼치고 남의 비방을 받게 되기에 이점에 유의한다. 또한 포덕은 이웃에게 선경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 준다.<sup>8)</sup> 『전경』에 묘사된 포덕은 평천하(平天下)와 치천하(治天下)의 과정으로 상제의 덕을 세상에 널리 퍼는 것이다.<sup>9)</sup> ‘평천하’가 증산상제의 천지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치천하’는 조경산(趙鼎山) 도주께서 행하신 50년의 종교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포덕은 증산상제께서 대순하신 천지공사와 정산도주께서 50년 공부로 계승하신 제민(濟民) 활동을 총괄한다. 결국 포덕은 증산상제와 정산도주께서 펼치신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구제창생(救濟蒼生)’의 뜻을 널리 전파하고 알려져서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고자 일상에서 상생실천으로 매개하여 선경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대인접촉(對人接觸)’이다.

과거 동학 총대를 지냈던 차경석이 보국안민을 주장하고, 스스로 ‘십이 제국’을 소원하며 왕후장상을 꿈꾸었지만 사리사욕이었기에 포덕과 거리가 멀었다. 그의 사리사욕으로 많은 사람들은 헛되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종교적 이타주의 관점에서 포덕은 상대의 이로움을 구할 뿐, 자신의 명리를 탐하지 않기에, “모든 일에 외면수습을 버리고 음덕에 힘써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고 당부한다.<sup>10)</sup> 이처럼 선행의 포

8) 『대순지침』, p.44.

9) 『전경』, 행록 3장 31절.

10) 같은 책, 교법 2장 18절.

덕은 상대를 이롭게 함이며, 드러나지 않고 ‘음덕’으로 이루어진다. 그 시기도 살피고 선행대상의 차이와 다양성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 선행은 효용성을 상실할 것이며, 시기와 상대를 면밀하게 살피는 배려가 있어야 ‘시중지도(時中之道)’를 살리고, “양이 적은 자에게 과중하게 주면 배가 터질 것이고, 양이 큰 자에게 적게 주면 배가 고평 터이다.”<sup>11)</sup>라는 지혜를 수반한다.

『대순지침』에 의하면, 포덕은 해원상생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상생원리를 실천토록 하며, 덕화선양(德化宣揚)에 노력함으로써 신앙의 3대 원칙을 중시하는 도리이다. 아울러 ‘성·경·신’을 떠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자 다섯 가지 실천과제를 주문한다.

첫째, 포덕은 ‘해원상생 대도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토록 한다. 포덕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의 대도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며, 포덕은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로 이룩하는 것으로 ‘덕을 펼침’이며, 겸허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길이다.<sup>12)</sup> 이를 통해 포덕은 타인을 위한 해원상생의 대도를 바르게 알려주어 윤리도덕의 상도를 성취하게 하고,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공공차원을 열어가는 일상생활의 행위실천의 길임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포덕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원리로 실천함’이다. 포덕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원리를 종교 이타주의 법리로 구성하여 화민정세(化民靖世)한다. 특히 인세(人世)에 낙원을 이룩한다고 하심은 광구천하·광제창생의 대의(大義)에 해당한다.<sup>13)</sup>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상제께서 대순하신 광구천하 진리로 구체창생을 위한 대인접촉이다.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포덕이 되려면, 이 세상이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고 광제창생을 이루어야하기에 포덕의 실천과제는 상제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하려고 의도하신 9년

11) 같은 책, 교법 2장 54절.

12) 『대순지침』, p.19.

13) 같은 책, p.20.

간의 천지공사를 널리 세상에 알리고, 지상낙원의 공공복락을 건설하는 일이다. 이에 포덕은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상제께서 무량권지(無量權智)의 소유주(所有主)임을 널리 세상에 알려 더불어 행복하도록 함에 그 동기부여가 발생한다.<sup>14)</sup>

셋째, 포덕은 ‘덕화선양(德化宣揚)에 노력함’이다.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sup>15)</sup> 아울러 남의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우주대원(宇宙大元)’의 진리를 깨달아 닦는 도인으로서 본분에 알맞은 참된 말과 참된 행위를 준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포덕은 도인으로 하여금 도규(道規)를 잘 지켜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안내하는 실천이다.<sup>16)</sup>

넷째, 포덕은 ‘신앙의 3대 원칙에 따라 수행함’이다. 이웃에게 앞으로 전개되는 선경 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주며, 인성의 원동력이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sup>17)</sup> 또한 상생의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源)이며 생성(生成) 변화의 법칙이고, 덕은 인성의 신맥(新脈)이며, 이러한 새로운 맥락이 바로 정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 원동력을 통해 윤리도덕으로 선경을 열어가는 새로운 맥이 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다섯째, 포덕은 ‘성(誠)·경(敬)·신(信)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성은 ‘기심(欺心)’이 없도록 함이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함이며, 신은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함이다.<sup>18)</sup> 이 포덕에 들어서면, ‘상생복락(相生福樂)’을 함께 누린다. 대순사상의 포덕은 상제의 덕화를 알려 도통진경으로 일상덕행을 닦아 가도록 실천함에 그 목적이 있다.

14) 같은 책, p.21.

15) 같은 책, p.22.

16) 같은 책, p.23.

17) 같은 책, p.44.

18) 같은 책, p.54.

## 2. 진여사상의 영능

진여사상은 생멸세계가 진여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생멸을 떠난 진여도 따로 없기에, 진여는 중생심의 실상이고 일체제법의 실상이 된다는 사상이다. 아라야식으로부터 연기하는 진여연기는 진여실상을 깨달아 청정무구의 실상으로 사람을 인도한다. 진여사상에서 영능은 대순사상의 포덕에 상응한다. 진여사상의 영능은 받고대수와 섭수·제세(濟世)의 가르침을 토대로 진여일여를 추구하는 영성의 능력을 말한다. 진여원의 진여영계(眞如靈系)의 확립과정을 살펴보면, 사람을 인도하는 진여영능으로 환희상승이 이루어진다. ‘신도인(眞導院)’ 기도로 영계(靈系)와 연결되고 영시(靈視)로서 상승현묘(相承玄妙)의 접심영시(接心靈視)가 이루어진다. 당시의 영시체현(靈視體現)은 지금의 접심과 사뭇 달랐다.<sup>19)</sup> 수행자 심상에 진여영계를 통해 부처의 자비와 지혜를 전달한다.

교주의 장남, 치분(智文, 나중에 敎導院으로 개명)에 관한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치분은 어렸지만 그 영감능력이 뛰어났다. 신도가 진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쇼쥬 신인의 무릎에 내려앉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반성하면, 스스로 쇼쥬 신인 무릎으로 내려와 앉았다곤 한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범상한 행동이 ‘부처의 마음을 교시(敎示)’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치분의 예지를 감득하게 되었다.

치분이 1936년 6월 9일, 1살 10개월로 사망하게 되자, 장남의 사망을 경험한 교주는 비통한 심정으로 고미산(高尾山)에 가서 폭포수행(滝行)을 행하였다. 사홍서원에 나오는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이 끝없어도 맹세코 모든 중생을 다 건지리라!)’를 다짐하고, 교리와 수법(修法)과 실천의 삼위일체를 피하였다.<sup>20)</sup> 수행 백 일제, 치분은 쇼쥬 신인의 영능에 감응하게 되었다. 교도인(敎導院) 사망은 수명을 다한 것이라기보다, 교도들의 고통을 대신한 형이상학적 죽음에 해당한다.

19) ひろたみお, 『ルポルタージュ眞如苑その時代性と革新性をさぐる』(東京: 知人館株式會社, 1990), p.83 참조.

20) 眞乘刊行會 編, 『眞乘』(東京: 中央公論新社, 2012), p.165.



어릴 때부터 진여영능을 가졌던 교도인(敎導院)의 죽음으로 진여영계를 개척하면서 부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자로서 타계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이는 자비심의 발로, ‘밭고대수(拔苦代受: 상대방 고통을 줄이는 대신 자신이 그 고통을 감내)’의 단서이다. 교도인(敎導院) 타계 후 얼마 되지 않아 교도들 사이에 영묘현상이 나타났다. 아픈 교도가 교도인 사경(死境)에 즈음하여 회복되거나, 또 다른 교도들도 위독(危篤)을 넘기었다. 교도인은 범호 그대로, 교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영계에서 한다고 알려졌다. 그 증거로서 교도인 사망으로 ‘즉시입신(卽時入神)’이 가능해졌다. 영언(靈言)이 교도인의 말임을 깨달아 영계와 감응하며 ‘현유일여(顯幽一如)’ 이치를 터득한 것도 교도인 사망이후의 현상이었다.<sup>21)</sup>

초칠일을 계기로 쇼쥬 신인의 영능으로 선조령(先祖靈)과 도교(道交)에 의한 진여영능이 이루어졌다.<sup>22)</sup> ‘현유일여(顯幽一如)’는 접심기틀이 되어 영계의 영(靈)들이 고통 받는 통증이 현세 자손에게 감응되고 소통됨이다. 피안에서 성불하지 못한 혼령들의 고통이 자손이나 연고자의 질병과 사고, 가정불화 등의 형태로 이어지는 공감사유를 반영한다. 일본의 고신도(古神道)는 고통을 영언(靈言)으로 전달하고자, 정좌(正坐), 명목(瞑目), 진혼결인(鎮魂結印)을 필수요건으로 삼는다.<sup>23)</sup>

고통스런 혼령에게 공덕을 회향(廻向)하며, 이승에서 수행하며 인연을 정화하면 성불의 길이 열린다고 믿게 되었다. 타계한 선령들이 편안하면, 현세의 인연중생들도 편안하게 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 체계를 쇼쥬 신인이 설교하고, 그것을 영계에서 알려주고 매개하는 것이 교도인의 역할이었다. “나는 환희로 하며, 할 수 없는 것일수록 자신을 닦는 숫돌이라 생각하여 진지하게 정진합니다. 그 때 비로소 인연도 끊어지고 기쁨이 솟아납니다.”라고 하였다.<sup>24)</sup> 이로써 첫 단계의

21) ひろたみお, 앞의 책, pp.85-86 참조.

22) 신노엔, 『일여의 길-구도편』, 앞의 책, p.104.

23) 大宮司朗, 『靈術傳授』(東京: 中央精版印刷株式會社, 2012), p.186.

24) 신노엔, 『일여의 길-영묘편』(서울: 도서출판 흥경, 2014), p.99.

진여영능이 확립되었다.

두 번째 진여영능 확립 단계는 ‘밭고대수(拔苦代受)’이다. 진여원에서 교도인(敎導院)의 사망에 의해 열린 진여영능과 밭고대수에 의해 조금씩 현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전에는 일반 교도로부터 영능자가 나오지 않았다. 1946년, 구리야마 조신(栗山乘心)이 처음의 영능자로 탄생하였으며 집심수행으로 또 다른 영능자를 탄생시켰다. 그녀가 영능자가 된 이틀부터, 한 달간 지속되었던 ‘대접심회좌(大接心會座)’에서 영능자가 계속하여 탄생함으로써 마침내 진여영능의 초석이 되었다.

1947년에 태어난 교주의 차남, 유이치(友一)도 10세, 영능상승(靈能相承)으로 영능개발에서는 연령이 문제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1952년 7월 2일, 유이치는 향년 15세에 타계하게 되었다. 병명은 고관절카리에스이다. 이 당시 주목사항은, 교도인(敎導院)의 사망시점과 유이치의 사망시점에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속출되었다. 말 못하는 형제가 갑자기 말문을 열게 되거나 위기사업이 회복되는 등 ‘기적’의 현묘(玄妙)가 이루어졌다. 현묘의 영능은 영성 능력이 포덕의 권화처럼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교단 내부에서도 영능자가 많이 탄생하였고, 진여실상의 당체를 깨달아 청정무구의 세계를 파악하거나, 투시 또는 통찰력이 높아지는 등의 현상이 이루어진 점에서, 유이치(뒷날 眞導院으로 개명)의 밭고대수가 작용한다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신도인(眞導院)의 타계를 통해, 자신이 구제받지 못하더라도 중생구제를 발원하며 염원하는 ‘밭고대수’가 ‘모든 것을 버릴 때, 그 안에 작동하는 이치’로서 이루어졌다.<sup>25)</sup>

‘밭고대수’는 ‘밭고여락(拔苦與樂)’,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기쁨을 제공함’이라는 의미의 불교용어를 진여원에서 나름대로 변화시켜서 공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대신,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는 신념체계로서 진여영계가 마침내 수립되었다. 이는 곧 종교적 이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타자의 고통을 줄

25) 같은 책, p.112.

이러는 배려정신이 깃들어 있다. 또한 진여영능에 의해 인간구제가 구체화됨이며, 이를 통해 진여원은 실제로 진여영능 신념체계로 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sup>26)</sup>

세 번째 진여영계 확립 단계는 궁극구제에 해당하는 ‘섭수(攝受)’의 정비과정이다. 앞서 과정은 진여영계의 80% 정도이다.<sup>27)</sup> 교주의 두 아들 타계로 말미암아 진여영계의 신념체계가 확립되었다. 마침내 ‘발고대수’라는 독자적 구제기능도 정착되었다. 영능자가 신도 가운데서 나왔으며, 점진적으로 깊은 연마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수준으로 정비되었다. 또 다른 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쇼쥬 신인의 타계에 의한 변화이다. 그녀는 진여영능 지도자로서 이또 신조 교주와 함께 세계를 순방(巡訪)하였지만, 1967년 8월 6일, 순방도중에 오사카(大阪)에서 급서(急逝)하게 되었다. 향년 55세로 교주와 동행하며 유럽 순방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비보(悲報)이다. 쇼쥬 신인 타계의 의미를 교주는 이렇게 슬회하였다.

“여행 도중에 교회와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쇼쥬 신인의 용태가 악화되었다. 수행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역시나 영능자, 쇼쥬 신인의 몸을 통해 부처가 영적 현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가는 곳 마다 이교의 흐름을 짠 조직, 또는 살육(殺戮), 박해의 사실(史實)을 가진 유적 등의 배경이 쇼쥬 신인이 감내한 고통과 미묘하게 상응하거나 일치하였음이다. 거기서 나는 대반열반경의 본지(本旨)에 근거하여 여러 교단과 ‘영화해(靈和解)’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배회하는 여러 영(靈)의 수용제도(受容濟度)로서 ‘섭수(攝受: 중생의 선을 관대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 인도방법)’의 이치가 사유로서 이루어졌다.”<sup>28)</sup>

26) 김용환, 앞의 글, p.42.

27) 같은 책, p. 87.

28) ひろたみお, 앞의 책, p.90.

쇼쥬 신인은 법호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靈)이나 가르침을 자신의 몸으로 ‘섭수(攝受)’하며 타계하였다. 그것은 진여영계의 천화(遷化)이며, 떠돌며 고통 받는 정령에 대한영계차원의 구원이다. 진여영능에 ‘섭수’가 추가되어 진여원의 구원체계가 완성되었다. 진여영능은 대순포덕과 닮아 있다. 교도인의 서거로 진여영계가 열리면서 접심수행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신도인(眞導院)의 타계로 발고대수가 확립되고, 쇼쥬 신인의 서거로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령까지 그녀의 몸으로 ‘섭수’하여 천화(遷化)하였다.

일련의 영능과정이 정비되면서, 진여영능은 마침내 신념체계로서 완비를 보았다. 교단은 교세를 확대·발전시킴에 따라 당연히 예배조직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마련이다. 카리스마를 갖춘 영능자에 의해 교단은 보다 확대되고 법요식은 강화되었다. 접심인연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듯이, 또 다른 접심으로 이어주고 매개하면서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영능자는 타자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번뇌를 비추는 것처럼 느꼈다.<sup>29)</sup> 진여영능은 교단확대와 함께 수행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영능확립을 병행함으로 진여원은 새 면모를 갖추면서 신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발고대수·섭수(拔苦代受·攝受)’의 타자구원의 힘은 많은 영능자를 배출하는 ‘영능매개(靈能媒介)’에 있다.

우주진동의 미망으로 파도로 일렁이는 진여불성은 바다를 잇고 파도로 나타날 때는 ‘항상 새로운 지복(ever new bliss)’으로 출현한다. 그 바깥 모습은 우주자연의 미망(迷妄)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영상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인간은 미망으로 인해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끊임없는 파도처럼 표출한다. 산들바람이 연못 위로 부는 것을 멈추면, 연못에 비친 달은 원래의 자연모습 그대로 일그러지지 않은 형상을 영시(靈視)로서 드러낸다. 미망의 폭풍이 영능으로 마음의 파도를 제거하면, 일그러지지 않은 형상을 복원시켜 영능월륜(靈能月輪)을 비춘다. 영능자에게서 드러난 타자는 내면에 불성이 투영된 순수 반야(般

29) 진여원, 『일여의 길-영묘편』, p.82.

若)의 모습이다. 영능상승에서 환희의 영능자는 서른여섯 동자와 감응하여 차례대로 매개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법 수호(守護)’를 몸짓으로 보여주었다.

투시영능은 신도인의 여동생, 마사코(Masako)와 시즈코(Shizuko)에게 환희예지(歡喜歡智)로 전승되면서, 열반현묘(涅槃玄妙)를 드러냈다.<sup>30)</sup> 영능에 관심을 두면, 잔인하고 냉담하거나 몰인정한 인성도 점차 달라진다. 금시조(金翅鳥)는 광대한 우주공간에서 비행하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거울에 비춘 듯 바라본다. 평화의 길은 행업을 지켜보면서, 그 뜻과 이치를 헤아리고 화해(reconciliation)를 이루는 길이다.<sup>31)</sup>

불성을 구축한 생명은 우주공간이 처소이지만, 탐욕의 새장에 갇히면, 진정한 해탈을 맞볼 수 없다. 열반경에 묘사된 순타존자(純陀尊者)의 최후 공양처럼, 세존은 모든 중생을 그의 아들, 라홀라와 같이 평등하게 대하시기에 진여영능과 접심상관(接心相關)으로, ‘현묘가시(玄妙可示)’의 대반열반으로 인도한다.

금시조가 한량없이 높은 허공으로 날아다니면서 바다를 내려다보아도 물속에 있는 고기·자라·거북·용 따위를 분명히 보며, 자기의 그림자 비친 것은 거울을 들고 얼굴을 보듯 하지만, 지혜가 없는 범부들은 그 이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 나, 순다와 문수사리계서도 그와 같아서 여래의 지혜를 헤아리지 못하나이다.<sup>32)</sup>

현묘는 영능광명을 받아야 비로소 그 이유가 밝혀져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몸으로 체해(體解)하면서 영묘한 신비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순타존자(純他尊者)의 공양보시를 받으신 후 세존께서 열반에 드셨다. 순타존자의 영능처럼, 진여영능과 열반이 상관 연동하여 상락아정(常樂我淨)으로 인도하여 ‘화엄 즉 열반, 열반 즉 화엄’을 이룬다.<sup>33)</sup>

30) 신노엔, 『일여의 길-구도편』, p.109.

31) Panikkar Raimon, *Cultural Disarm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p.96.

32) 『大槃涅槃經』, 『純陀品』, 이운허 옮김, 『열반경 I·II』 (서울: 동국역경원, 2011), p.39.

### Ⅲ. 대순교화와 접심인도의 윤리적 실천

#### 1. 대순사상의 교화

대순사상의 교화는 해원상생 이치를 믿게 하는 감화로서 선악감응에 근거한다. 선을 행하면 선 과보를, 악을 행하면 악 과보를 받는다. 『전경』에는 선악감응의 원칙에 근거한 교화를 강조한다.<sup>34)</sup> 교화의 선행을 실천하면 신령의 감찰과 상벌을 받기에 이른다.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신벌(神罰)’ 혹은 ‘인벌(人罰)’을 받는다.<sup>35)</sup>

대순사상의 교화는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는 종교 이타주의 원칙에 근거한다. 사람이 몰라도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을 교화하면서 비방하지 말고, 조화를 귀하게 여기고, 다툼을 반대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함으로 교화의 진정성을 요청한다. 『전경』에는 상제께서 곤충을 사랑하고, 새와 짐승의 해원을 도우며, 소들이 싸우지 않도록 화해하기를 권하는 사례에서 교화 방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순지침』에 따르면, 교화는 ‘상생원리로 실천함이며, 신앙의 3대 원칙에 따라 수행함’으로 포덕과 연동되어 있다. 동시에 교화는 포덕과 같이 성·경·신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교화는 포덕처럼 대순진리회의 미래를 여는 최대과제이다. 입도한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종교 이타주의 교육에 임한다. 교화는 상제께서 창생구제를 위해 행한 천지공사로 말미암아 무극대운이 후천선경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고

33) 신노연, 『법의 울림 11』 (서울: 광림북하우스, 2014), p.41.

34) 『전경』, 교법 1장 11·19·25·29절, 2장 17·20·30·44·50절, 3장 24절에서 나타난다.

35) 같은 책, 교법 1장 32절.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천운을 살피되, 창생이 창생을 서로 구하고 살리는 인도(人道)의 시대를 맞이하여 신념체계를 갖추고자 세 가지 실천과제를 주문한다. 첫째, 교화는 ‘해원상생을 믿게 함’이다. 먼저 교화는 입도한 도인에게 밝은 재활이 불역(不易)의 천운구인(天運求人)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자인하고 자각하게 함이다. 교화로써 도를 심심화(心深化)하고 수훈(垂訓)의 진법(眞法)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수도자의 입문으로 삼는다.<sup>36)</sup> 이 입문(入門)은 신의 도로서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작용을 통하여 선경세계를 여는 절대 규범으로 기능하게 한다.<sup>37)</sup>

둘째, 교화는 ‘신앙의 3대 원칙대로 수행토록 함’이다. 먼저 기본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다. 또한 천리와 인사의 합일을 밝혀 만상만유가 도 안에서 생성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확신토록 한다.<sup>38)</sup> 그리고 교화는 신앙심을 높이는 길 잡이가 되므로 임기응변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 전폭적으로 믿도록 해야 한다. 결국 임원들은 수반 도인에 대한 교화를 인정이 넘치며, 신뢰가 감돌아 허세를 부리지 말고, 안색은 화기 있게 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한 시간을 택하여 부담이 없는 대화로써 신앙심을 높여야 진리 도통진경에 이르는 제도의 길이 된다.<sup>39)</sup>

셋째, 교화는 ‘성·경·신을 떠나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게 함’이다. 무엇보다도 속이려고 하는 기심(欺心)을 제거하며, 예절을 갖추고 바르게 행하고,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참된 정성이 있는 곳에 상제님의 하감(下鑑)하심이 있기에, 교화는 천지신명의 보살핌을 수반하는 대순사상의 신념체계를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6) 『대순지침』, p.22.

37)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1), pp.203-204.

38) 『대순지침』, p.45.

39) 같은 책, p.44.

## 2. 진여사상의 접심

이또 신조의 불성사상은 진여발심과 접심인연의 연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접심인연을 통하여 컨설팅 능력을 배양하고 통찰력의 연마·향상을 다각도로 꾀하게 된다. 접심인연은 자신의 주관을 타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다. 진여원은 자신의 영능을 타자의 마음 거울에 비추면서 불성을 그 본래면목으로 자각하고, 이러한 상담의 기법을 개발하여 선정(禪定)의 이치를 타자를 위한 접심수행으로 활용하게 되었다.<sup>40)</sup>

열반경이 주요경전이지만, 진여원이 출현하기 까지 일본에서는 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교단은 없었다. 반면에 중국에는 열반종이 융성하던 시기에 이미 열반경은 법화경과 비교되면서 함께 칭송을 받았다. 일본의 흥복사(興福寺), 석산사(石山寺), 고야산(高野山) 등의 큰 절에서 행해지는 열반회(涅槃會)나 상락회(常樂會) 등은 열반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불교의식이다. 일본 최초의 법화경 신자(信者), 쇼오토쿠 타이시(聖德太子: 593~622)는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은 성불(成佛)의 덕과(德果)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법화경을 듣는 사람이 세상의 오락(汚濁)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마치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그 꽃은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피는 것과 같다.”<sup>41)</sup>

『열반경』이 부독본(副讀本)인 당시에, 이또 신조는 열반경에 주목하였다. 열반경이 여래상주(如來常住), 일체실유불성(一切悉有佛性), 천제성불(闍提成佛),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시각을 제시하기에, 진여발심을 영시(靈示)하면서 접심인도의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모색하였다. 시

40) 溝口敦, 『新宗教時代 1』(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96), pp.148-149.

41) 『大法輪』昭和六十三年・五月号収載・久留宮圓秀「法華經・觀音經」



작은 향상접심(向上接心)이다. 문제를 상담하지 않고, 자신을 수행하고자 한 달 한번이상 법요식에 참여한다. 다음은 상담접심이다. 질병과 사업 등의 운세와 고통을 영능자와 상담하면서, 영언을 사용하고 마음으로 접촉한다.

그 이후 감정접심(鑑定接心)의 기회를 갖는다. 상담자와 영능자가 일대일의 상관관계를 맺고 만나며, 영능자가 접심자의 문제를 듣고서 해결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밖에 상위의 향상상담접심(向上相談接心)이다. 불성에 근거한 진여발심과 접심인연으로 수행자는 ‘보리향상(菩提向上)’을 꾀하고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한다. 세존은 집착 없는 무위법을 사용했지만, 중생들은 유아처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접심을 통하여 영언(靈言)을 적극 활용한다.

모든 중생의 종류가 각각 다르고 말이 같지 않지만 여래는 방편으로 그들을 따라 말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말로 인하여 알게 하느니라.<sup>42)</sup>

1956년 10월 18일, 진여원은 접심도량 건설로 ‘지진제(地鎮祭)’를 엄수하였다. “성스러운 것을 구할수록 샷된 것이 수반된다.”는 영언을 듣게 된다.<sup>43)</sup> 마음이 산란하면 불성을 망각(忘却)한다. 접심인연으로 불안과 산란을 영시로 투시되면, 영능으로 상접하여 그 뜻을 풀이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행복을 구하는 안이한 방식으로 행복은 불가능하다.<sup>44)</sup> 공공복락 구현을 위해 진여자성을 체득하면, 물질과 정신적 깨달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sup>45)</sup>

번뇌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거든, 큰 지혜이신 여래께서 그에 맞는 방편을 구사하여 지혜의 등을 켜시어 보살들로 하여금 열반이 항상 함께하는 즐거운 나의 깨끗함을 보게 하시나니.<sup>46)</sup>

42) 『大槃涅槃經』, 『嬰兒行品』, 앞의 책, p.452.

43) 신노엔, 『일여의 길-영묘편』 (서울: 도서출판 홍경, 2014), p.90.

44) 신노엔, 『마음속에 빛의 소리들』 (서울: 디자인, 2005), p.88.

45) 김용환, 「시장경제와 불교윤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7(1) (2011), p.144.

극심한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어 생존마저 위태한 상황에서, 얼음을 깨고 백도백배(百度百杯)의 물수행의 극단적 경계에 이르면, 심신훈육(心身訓育)이 되어 환경의 예속(隸屬)에서 벗어난다.<sup>47)</sup> 과거 감각고통의 기록을 깨뜨리고 접심인연에 따른 심신수행을 지속하면, 마음의 ‘초연성(超然性)’을 깨닫는 진여자성에 이른다. 접심수행은 진여자성을 깨닫는 단서이다. 접심수행은 무명의 아치(我癡), 아만(我慢)으로 둘러싸여 자신에 대한 애착으로 묶여 있는 수행자들을 영능자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그 애착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상담기법이라고 할 것이다. 종교적 이타주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타자와 함께 하는 수행법이라고 할 것이다. 접심자의 주관적 관행은 영능자의 도움으로 객관적 관행으로 바뀌어 본성을 깨닫게 한다. 접심수행은 방편의 지혜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으로 단속하고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진여일여에서 공공복락을 위해 헌신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이 동일본대지진의 위기를 겪었을 때, 이또 신소원주(伊藤真聰 苑主)는 식료·의료·모포 등의 물자뿐만 아니라 1억 1천만 엔(円)을 의연금으로 쾌척(快擲)하였다.<sup>48)</sup> 이타적 자선은 사무량심(四無量心: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慈·悲·喜·捨)의 발로이며, 무명이 제거된 상락이 토대를 이룬다.<sup>49)</sup> 열반은 불성구족의 ‘정각(正覺)’을 말한다.

여래의 비밀의 뜻을 능히 안다 함은 곧 대반열반이니,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서, 네 가지 중대한 계율 범한 것을 참회하고, 법을 비방한 죄를 없애고, 5역죄를 끝내고, 일천제를 멸하며, 그런 뒤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을 깊고 비밀의 뜻이라고 하느니라.<sup>50)</sup>

46) 『大槃涅槃經』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앞의 책, p.476.

47) 신노엔, 『일여의 길-구도편』, p.24.

48) 신노엔, 『眞如怨社會貢獻活動』 (東京: 眞如怨, 2014), p.6.

49) 신노엔, 『일여의 길-교도편』, p.155.

50) 『大槃涅槃經』,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앞의 책, p.459.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면, 그 배우자는 고뇌를 수반하며 급속도로 쇠약해 질 것이다. 병고를 앓는 징후가 없더라도 수척하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고통을 용인하거나 불행을 초래하는 예민함의 미망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또 신조는 ‘보제이쇼(病筮鈔)’를 연찬하고 진언밀교의 심오함을 추구했다. “부처와 법과 교단은 화합승이며 화합승과 자신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51)</sup> 접심치유는 생체의 ‘전파진동율(電波振動率)’을 높인다. 자식이 사고를 당하여 고통 받는 모습을 아파하는 어머니처럼, 마음의 부조화를 느끼고 고통에 민감해진다. 고통을 목격하였더라도, 고통과 자신을 분리하면 고통에서 해방된다.

수행이 깊어지면, 고통발생이 자아와 ‘공감대상(共感對象)’의 동일시 현상임을 깨닫는다. 이 경우에 불사리(佛舍利)에 공양하면, 이승 또는 저승에서 복덕을 받는 공덕(功德)을 이룬다.<sup>52)</sup> 접심수행은 초발수행자더라도 영능자에 의해 깊은 선정으로 안내한다. 접심정상(接心定相)은 ‘공삼매(空三昧)’에 들거나 평등사상(平等捨相)은 ‘무상삼매(無相三昧)’를 성취한다. 지혜혜상(智慧慧相)은 ‘무원삼매(無願三昧)’에 들게 함으로 보살도를 이룬다.<sup>53)</sup> 접심치유는 대상과의 동일시 망상을 떨쳐서 진여영능과 접심상관에 의한 환희상승으로 인도한다.<sup>54)</sup>

## IV. 덕성함양과 봉사활동의 사회적 기여

### 1. 덕성함양의 인격

51) 신노엔, 『법의 울림 2』 (서울: 광림북하우스, 2014), p.33.

52) 신노엔, 『정원을 거닐며 II』 (서울: KBS 주식회사, 2002), p.31.

53) 신노엔, 『일여의 길-교도편』, p.56.

54) 김용환, 「열반경의 열반과 이또 신조(伊藤眞乘) 불성사상의 상관연동 연구」, p.54.

대순사상의 포덕과 교화는 보은과 해원에 초점을 둔다. 도덕평가에서 ‘옳음’은 ‘법칙주의’로 평가되고, ‘좋은’은 ‘결과주의’로 평가된다. ‘법칙주의’는 개별행위, 도덕규칙, 도덕규준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법칙주의’는 도덕규칙을 행위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어떤 것이 도덕규칙인지를 알려주는 근거로서 도덕규준을 제시한다. 해원상생의 도덕법칙에서 도덕행위의 평가기준은 훈회이며, 실천행위와 훈회기준의 상응여부로 도덕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해원상생은 도덕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규준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행위는 ‘옳은’ 행위가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한을 맺게 하거나 원한을 쌓게 하는 모든 행위는 ‘그른’ 행위로 평가된다. 도덕규준이 훈회에서는 두 가지 적극적 긍정표현과 세 가지 소극적 부정표현으로 구성된다. 긍정표현의 규칙으로 ‘남을 잘 되게 하라’와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의 도덕규칙이다. 이는 생명보은의 상생을 위한 덕행실천의 도덕규칙이다. 남을 잘 되게 하고, 언행을 올바르게 행하여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는 상생실천이다.

반면에 부정표현의 규칙으로는 ‘마음을 속이지 말라’, ‘척(慼)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의 도덕규칙이다. 마음이 행위와 언행의 근본이므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삼아 타자에 대한 해원상생을 이루는 덕행실천의 규칙이다. 타인으로부터 입은 은혜는 ‘보은상생’이라는 도덕규칙의 긍정표현으로, 상극을 낳게 되는 척을 더 이상 짓지 않는 ‘해원상생’이라는 도덕규칙은 부정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규준으로서 보은상생과 해원상생은 대순사상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대순사상은 선천 상극에서 후천 상생으로 이행되는 유기체에 근거하기에, 이러한 세계관을 반영하는 보은상생과 해원상생은 ‘옳음’에 대한 도덕적 당위성을 유기적 관계성으로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천지창조 세계관을 반영하는 서양의 ‘신명론(神命論)’에서는 도덕규칙의 정언명법 근거를 창조주로부터 도덕규준을 모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독교 도덕규칙이 파생되어 실천행위로 나타나는 이치와 유사하다. 법칙주의 관점에서, 옳음의 정당성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부터 도출되기에, 메타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대순사상의 보은상생과 해원상생의 도덕규칙의 정당성에 관하여, ‘옳음’의 결과주의 관점에서 ‘좋은’을 도출할 수 있다. 해원상생에 관한 훈회와 수칙을 살펴보면, 항목 사이의 대립이 발생하거나 수칙을 어길 수 밖에 없는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남이 잘 되도록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척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로스(W. D. Ross)의 ‘조건부(prima facie)’ 의무론으로 조정이 가능하다.<sup>55)</sup> 도덕규칙의 각 항목을 ‘그보다 더 중요하고 비중이 큰 다른 의무가 없는 한’의 조건부 절대 의무가 된다는 방식의 ‘조건부 의무론’로 적용함으로써 순위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prescription)의 윤리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sup>56)</sup>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옳음’은 도덕규칙에 근거하여 평가되지만, 그 규칙의 옳음을 도덕규준에 의해서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보은상생과 해원상생에 적용하면, 항목 사이의 갈등조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을 순차적으로 차단시켜 나갈 수 있거나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은상생과 해원상생은 상생의 유기체론을 전제로 도덕적으로 평가되거나 정당화가 이루어진다.<sup>57)</sup> 오늘날 실용주의가 발달하여 실용주의 관점에서 ‘쓸모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실존주의와 실용주의에서는 자율, 평등, 인격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기 어렵다. 이에 대순사상의 유기체에 토대를 두는 보은상생과 해원상생이 요청된다. 인도의 과탄잘리는 요가수트라에서 이 지침을 ‘금계(禁戒: Yama)’와 ‘권계(勸戒: Niyama)’의 두 계율로 나누었다. ‘금계’가 남들을 포함한 외부 세상과 척을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어 척

55) W. D. Ross, *The Right and the Good* (Oxford: Oxford Press, 1930), pp.19-20.

56) 오스틴(F. L A. Austin)의 언어철학에 입각해 윤리적 언어를 새롭게 분석하는 해어(R. M. Hare) 이론은 처방의 윤리이론이다.

57) 김학택, 「상생윤리의 체계에 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19 (2005), p.7.

을 지지 않고 행동하는 ‘해원상생’의 지침과 연동된다면, 권계는 자신의 진실한 내면이 ‘자재신(自在神: Isvara)’과 보은관계를 맺고 실천하는 ‘보은상생’의 지침과 연동된다.

요가수트라에서는 해원상생 지침으로 불살생(不殺生), 불망어(不妄語),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탐욕(不貪慾)을 들고, 보은상생 지침으로 청결(清潔), 자족(自足), 수도(修道), 진실(眞實), 헌신(獻身)으로 이루어져 있다.<sup>58)</sup> 대순사상의 포덕과 교화의 지침이 되는 상생가치는 개별적 행위, 훈회의 도덕규칙, 해원상생의 도덕규준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옳음’의 법칙주의 요소와 ‘좋음’의 결과주의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옳음의 목적과 좋음의 결과에 관한 이중효과를 충족시키는 상생가치는 옳음의 해원과 좋음의 보은으로 덕행(德行) 중심의 사회적 기여를 이중효과를 살피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sup>59)</sup>

반면에 진여원의 진여불교는 인연법을 중시하는 불교전통을 살려 수행자가 영능자를 대상으로 상대심상을 자신의 영능거울에 비추어 영언(靈言)을 전달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신구의(身口意)’의 삼업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접심을 통하여 행한다. 진여자성 회복을 위한 덕성중심의 교화를 실천하는 셈이다. 접심수행은 진여전승(眞如傳承)을 통해 금강신(金剛身)을 확립하게 함으로 열반법신(涅槃法身)의 위신력(威信力)을 장엄하게 한다.

어떤 비구가 깨끗한 천안통을 얻어, 시방의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물건 보기를 손바닥에 있는 암마루 열매를 보듯이 한다면, 이런 비구도 쌍으로 선 사라나무를 장엄하게 할 것이니라.<sup>60)</sup>

58) 정태혁, 『요가수트라』 (서울: 동문선, 2000), pp.139-140.

59) MacKinnon Barbara, *Ethics Theory and Contemporary Issu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1995), p.87 참조. 이중효과는 목적론과 의무론의 장점을 살리게 된다.

60) 『大槃涅槃經』, 「獅子吼菩薩品」, 앞의 책, p.674

짧은 기간에 진여 영언을 화두로 삼아 내면의 불성을 체해(體解)하고, 접심수행자가 자신의 심상을 영능자의 영언을 매개로 관조하는 순간, 인연법의 ‘공(空)’을 깨닫고, 여러 선령과 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반야로 사물을 직관하게 된다. 접심수행을 통하여 수행에 장애가 되는 영적 현상을 소멸시키고, 마음의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제거하고 삼매를 현전하게 하여 일체경계에 머물지 않고, 진실을 증득하게 한다.

여찌하여 진실한 생각이라 하는가. 모든 번뇌를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자비를 닦는 이는 탐욕을 끊어 버리고, 가없이 여김을 닦는 이는 성냄을 끊어 버리고, 기쁨을 닦는 이는 즐겁지 아니함을 끊어 버리고,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과 중생이란 모습을 끊어 버리나니.<sup>61)</sup>

진여사상은 영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접심수행의 상담기법으로 영능자가 전해주는 영언을 수행의 계기로 삼아 스스로의 자성청정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게 된다. 영언의 화두는 지은 업을 소멸시켜 자성청정의 덕성을 회복한다. 마음을 성찰하고 안일함에 머물지 않도록 정진을 이어감으로 접심수행은 영능자를 새롭게 탄생시켜 ‘상락아정’ 세계로 인도한다.<sup>62)</sup> 진여영능이 신비현상을 수반하지만,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방편으로 표출된 것이다. 덕성함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언을 전달하는 접심수행이며, 영능자 자신도 접심자의 업의 인연을 돌이켜 보며 서로를 횡단 매개하여 공공수행으로 이어간다. 수행자와 영능자가 공공업보(公共業報)를 함께 정화시켜 불국정토 건설을 앞당긴다.

한량없는 부처님께 늘 공양하고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도를 닦으며 세상의 즐거움을 받더라도 방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법답게 머문다 하리!<sup>63)</sup>

61) 『大槃涅槃經』, 「梵行品」, 앞의 책, p.334.

62) 진여원, 『알기 쉬운 교전 용어집』 (서울: 도서출판 홍경, 2012), p.76.

의식으로 진여실상을 구하면, 제 7식의 말나식(末那識)의 잡념이나 망념이 구체화되기에 불성을 가리는 번뇌의식을 정화시킬 수 없다. 잠재적 망념, ‘장애령(障礙靈)’을 극복하고자 수행자는 영능자의 영언에 집중하는 접심수행의 수련법을 택한다. 대순사상의 포덕과 교화는 해원상생을 위한 행위중심의 이타적 봉사실천으로 인도한다면, 진여사상의 영능과 접심은 진여일여를 위한 성품관조의 자리이타의 사회적 기여를 꾀하게 된다.

## 2. 봉사활동의 기여

포덕은 상제의 보은상생으로 성(誠)을 깨닫고 사회적 잘못을 바로 잡아감에 그 요체가 있다.<sup>64)</sup> 포덕과 교화가 봉사활동으로 나타나는 현황은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통해서이다. 구호자선사업은 고통 받는 이웃, 인류를 돕는 운동이다. 종단 창설 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돕는 데 역점을 두고, 불우한 이웃과 아동에게 식량과 연료, 생활 터전을 지원하며, 신체장애자 및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무료 양로원과 고아원도 운영하며 해외구호자선사업에 나섰다.

케냐와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등, 아프리카의 민생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생필품뿐만 아니라 재봉틀 등 생업 물품도 제공하였다. 농경기술과 각종 장비를 공급하여 경작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식량을 해결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순진리회는 구호자선사업을 위하여, 대진국제자원봉사단체(D. I. V. A :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를 편성하였다. 이 조직은 다양한 국내외 자원봉사단체들과 협조하여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을 준비함이다. 축적된 전문 기술을 보유한

63) 앞의 경, p.799.

64) 김용환, 「대순사상 성경신의 상관적 연동관계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11 (2012).



도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려는 실천이다. 사회복지 확충은 빈곤층과 부유층의 격차를 완화하여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sup>65)</sup>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회사업과 의료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사업은 새마을운동, 자연보호 캠페인, 산불방지 캠페인, 교통질서 및 거리정화 운동, 방법활동, 농촌일손 돕기, 미아보호운동, 노인 경로 잔치, 경로사상 선양운동, 청소년 육성회 지원 등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의료사업은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대순진리회는 경기도 분당에 종합병원을 건설·운영하고, 동두천시와 강원도 고성군에 상당규모의 종합병원 두 곳을 추가로 건설한다. 병원은 전문 의료진들과 뛰어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들에 비해 병원비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그 문턱을 낮추었다.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에서 주목 받는 것은 노인복지사업이다. 지난 2009년 경기도 여주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함께 갖춘 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하였는데, 이 시설은 최첨단 설비 및 운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노인복지센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1인 1실을 10개 정도 모은 유닛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생활이 보장되면서도 이웃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한사람에 대한 한사람의 세심한 보살핌과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노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한다. 대순진리회 노인복지센터 시스템에 주목하여 노인복지 시스템에 점차로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도 도덕을 체인하고 실현하여 어떠한 유희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도 없는 상태, 대병지약으로서 안심·안신이라고 할 수 있다.<sup>66)</sup>

65) 박승식, 「대순사상과 사회복지」, 『대순사상논총』 6 (1998), p.605.

66) 이경원, 앞의 책, p.345 참조.

그리고 교육사업은 참된 인간 육성을 목표로 대순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지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한 개인이 성장하고 가족, 지역, 사회,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량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대순진리회는 중단 초창기부터 불우한 학생들을 찾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사업에 깊은 애정을 기울여왔다. 경기도 포천에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를 운영 중이며, 중국 하얼빈 대학과 소주 대학에도 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외에도 1984년부터 전국 6개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인의를 갖춘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대순진리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원리로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들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67)</sup> 그런데 대순진리회는 사업성과를 홍보하지 않고 포교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다. 그것은 3대 중요사업이 바로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의 공익사업이 대순진리회의 포교에 간접 도움이 될 것이지만, 종교인으로서 포덕에 초점을 두고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자선사업을 할 때 자금은 대순진리회 도인들의 한 달에 한 번씩 도장에 10만 원 이하로 내는 성금으로 충당한다. 본부도장에서는 성금의 70% 이상을 3대 중요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1975년부터 2013년까지 39년간 총 누적액수 8000여 억 원을 상회하는 성금이 공익 자선 사업에 사용되었다.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에 드는 비용은 도인들의 십시일반의 성금으로 운영되며, 공익자선사업을 실천한다. 공익자선사업에 대한 가치에 공감하여 결단이 이루어져야 창조적 선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포덕은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며, 포덕천하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된다.

반면에 진여원의 봉사실천의 기여는 사회봉사와 사람인도, 환희상승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바, ‘유니세프협회’, ‘유엔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 ‘적십자사’, ‘유네스코협회연맹’ 등에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통해 세계적 기아와 빈곤을 타파하는 활동에 앞

67) 박중수,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 현황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p.296.

장서고 있다. 진여원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의 포교당(서울, 창원, 부산, 제주)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사람인도의 측면에서 진여원은 점심상담을 인연으로 진여불성에 귀의하게 한다. 각국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을 지속하며, 장애인지원, 문학 강연회, 고악기보원과 연주회 개최, 동경 타마지구의 시민활동을 위한 공원조성, 오우메 숲 조성에 의한 휴식 공간 제공, 중국에서의 나무심기 사업, ‘진여원 랑카스쿨’, ‘유니벨재단’, ‘이토 국제교육교류재단’, ‘나레이알로하재단’의 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국내포교당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장학사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환희상승의 측면에서 영능자의 환희세계를 신앙인이 상승하도록 한다. 진여원의 종정, 이또 신소(伊藤眞聰)는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은 행복을 개척하는 힘, 진실을 믿는 힘으로, 사람들에게는 반짝 반짝 빛나는 불성이 있다.”<sup>68)</sup>고 했다.

1970년 이래 ‘공공지역 청소봉사’, ‘클린 타마가와’를 결성하여 주변을 새벽에 청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희세계를 열어간다. 환희상승을 대승이타 실천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자족적 복지 공급체계를 강화시켜 환희를 공유한다. 해탈에 집착하기보다 남을 구제하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실천을 중시하고, 괴롭고 힘든 이웃을 발견하면 먼저 위로하며 교화하고, 기쁨을 전해주는 환희상승을 이룬다. 출가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진여원의 지류학원을 졸업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하고 교사가 되면, 승려의 위계인 승계를 받게 제도화 한다.

진여원의 승계는 1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교사보의 승계, 율사, 권소승도, 권중승도, 권대승도, 권소승정, 권중승정, 권대승정, 권율사, 대율사, 소승도, 중승도, 대승도, 소승정, 중승정, 대승정의 순차적인 차서를 밟는다.<sup>69)</sup> 재가신도이지만 승려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계율의 모양에 걸려 진여자성으로부터 멀어

68) 신노엔, 『마음속에 빛의 소리들』 (서울: 디자인, 2005), p.144.

69) 진여원, 『알기 쉬운 교전 용어집』 (서울: 도서출판 흥경, 2012), p.49.

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의 출가를 중시하여 삭발한 승려의 모습을 취하지 아니한다. 환희상승을 위한 육바라밀의 실천을 중시하지만, 실천적 행위보다 실천하는 성품을 관조하게 한다. 특히 육바라밀에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재시(財施)를 ‘환희’로 삼는다.<sup>70)</sup>

## V. 맺음말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교화는 수레에 실린 보물과 수레에 비유된다. 포덕이 수레에 실린 목적성을 상제덕화의 보물이라면, 교화는 그 목적을 전달하는 방편으로서 수레이다. 양자는 선을 권하며 타자를 위한 실천으로 ‘권선행선(勸善行善)’을 표방한다. 선행이 반드시 선의 결과를 담보하지는 아니더라도, 대순사상에서는 선행을 통한 포덕·교화의 사업은 상관연동을 맺는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신(誠敬信)’의 윤리태도를 일심(一心)으로 유지하고 수도를 통해 도통진경에 이르는 구경(究竟)에 이른다. 선행의 포덕은 보은상생 차원에서 ‘명리’보다 ‘음덕(陰德)’을 강조하며, 선행의 교화는 해원상생 차원에서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는 계행준수가 요체이다. 이는 신명이 먼저 알고 적이 되어 갚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의 수도(修道)는 대선(大善)·지선(至善)·진선(盡善)에 목적이 있다. 포덕·교화·수도는 삼위일체를 이루어 대순사상을 이해하여 믿고 실천하게 한다. 또한 일상을 윤리적 삶으로 이끌면서 공공선행(公共善行)으로 이 땅에 지상선경을 이루게 한다. 이 선경건설은 인간을 파멸에서 건진 해원공사를 통해 만고신명을 조화하고 천지도수

70) 같은 책, p.62.

에 의해 후천개벽으로 펼쳐지만, 근본적으로 상제신앙 일심의 ‘초월의 초월’ 관점을 중시한다.

진여원(眞如苑)은 여래의 진여성품을 수용하여 ‘진여연기(眞如緣起)’로 접심인연을 맺고 진여영능 매개로 환희상승을 계승하는 ‘초월의 내재’ 관점에 선다. 이또 신조(伊藤眞乘)의 불성사상은 불성(佛性)을 진여자성으로 믿고 이해하고 진여일여(眞如一如)를 깨닫게 한다. 이는 대자자비 마음으로 이웃에게 ‘동체대비’ 마음으로 다가가서 접심상당으로 사람을 인도한다. 진여불성은 구래부동(舊來不動)의 마음이다. 진여원에서는 불성이 진여실상의 ‘여래장(如來藏)’으로 내재하기에 ‘향외(向外)’ 접근보다 향내(向內) 접근의 체화(體化)를 중시한다.

일찍이 레이몽 파니카(R. Panikkar)는 ‘초월의 초월(transcendental transcendence)’의 길, 또는 ‘초월의 내재(transcendent immanence)’ 길에서 영성신비의 체험을 이루게 하는 ‘현묘(玄妙)’의 모델에서는 ‘종교의 초월적 통일(transcendental unity of religions)’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모델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윤리적 실천행위로 정당성을 평가받기보다 실천의식의 초월성으로 종교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71)</sup>

선남자여, 그대가 깊고 훌륭한 지혜를 성취하였으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여래장에 들어가도록 말하리라. 만일 내가 머문다면 그것은 항상(恒常)한 법이니 그 괴로움을 여의지 못하리라.<sup>72)</sup>

초월지향의 헌신 없는 종교는 사교집단으로 전락한다. 종교는 자기 희생과 타자지향의 실천윤리를 겸해야 그 생명력을 지속한다. 역사적으로 타자윤리와 초월지향을 선도하는 세계종교는 종교 이타주의 성격이 뚜렷하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교화는 일본 진여원에서는 진여영능과 접심으로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다. 아울

71) Panikkar Raimon, *Intra-Religious Dialogue* (New York: Paulist Press, 1999), p.22.

72) 『大槃涅槃經』, 「如來性品」, 앞의 책, p.168.

러 이승을 떠난 영가(靈駕)들이 무명업력(無明業力)으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두운 업력 때문에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며 까마귀 등지를 까마귀 등지로 보지 못하거나 뱀의 몸을 뱀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이 사는 곳을 가장 좋은 낙원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대순사상의 포덕과 교화는 이 착오를 치유하고 상제신앙에 근본을 두는 ‘초월의 초월’의 유형이다. 반면에 진여사상의 영능과 접심은 진여자성을 깨닫는 ‘초월의 내재’ 유형으로 상호대비를 이룬다.

헌신과 희생, 봉사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종교는 사회의 해악을 끼친다. 21세기 종교는 이타의 윤리실천을 중시한다. 세계시민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대순사상과 진여사상은 종교적 이타주의 전망을 모색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포덕과 교화는 보은과 해원의 타자 살리기를 위한 상생(相生) 중심의 ‘덕행윤리(德行倫理)’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진여사상의 영능과 접심은 진여자성 회복을 위한 접수(攝受) 중심의 ‘덕성윤리(德性倫理)’에 방점(傍點)을 두고 있다. 대순사상의 상생중심의 상제신앙이 ‘초월의 초월’ 범례에 속한다면, 진여사상의 자비중심의 진여불심은 ‘초월의 내재’ 범례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상생중심의 종교는 초월적 상제신앙의 영성차원을 수렴하여 일심의 신념체계를 형성하면서 이 지상에 지상선경을 구현하고자 수도로 이어진다. 또한 상생중심의 윤리는 상제보은의 포덕과 이웃해원의 교화를 상호 매개하여 상생의 봉사활동으로 이 사회에 기여한다. 반면에 진여원의 자비중심의 종교는 진여불성을 향내로 자각하여 진여불심으로 사회봉사를 숭선한다. 종교 이타주의 관점에서 성찰하면, 초월성이 결여된 행위중심의 포덕과 교화는 무기력할 수 있고, 자비행이 결여된 견성중심의 영능과 접심은 맹목적일 수 있다.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초월지향의 덕행과 향내 덕성을 아우르는 영성구현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4.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1969.
- 『大正新脩大藏經』, 涅槃部, T.0374~T.0396.
- 『열반경 I·II』, 이운허 옮김, 서울: 동국역경원, 2011.
- 『한국불교전서』, 서울: 불교문화연구원, 1996.
- 김용환, 「열반경의 열반과 이또 신조(伊藤眞乘) 불성사상의 상관연동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 학회지』 21(1), 2015.
- 박승식, 「대순사상과 사회복지」, 『대순사상논총』 6, 1998.
- 박중수,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 현황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 신종교연구회, 『신종교 가이드』, 동경: 구천사, 2006.
-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도서출판 문사철, 2011.
- 溝口敦, 『新宗教時代 1』,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96.
- 眞如苑文書伝道部, 『解説眞如怨の教學』, 東京: 大日本印刷株式會社, 2010.
- 眞如苑教學部, 『歡喜世界』, 東京: 大日本印刷株式會社, 2014.
- 稱場圭信, 『利他主義と宗教』, 東京: 弘文堂, 2012.
- 伊藤眞乘, 『燈火念念』, 東京: 眞如苑教學部, 2009.
- 眞乘刊行會 編, 『眞乘』, 東京: 中央公論新社, 2012.
- 大宮司朗, 『靈術傳授』, 東京: 中央精版印刷株式會社, 2012.
- ひろたみお, 『ルポルタージュ眞如苑その時代性と革新性をさぐる』, 東京: 知人館株式會社, 1990.
- Arendt, H.,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7.
- Cohen R. A., "Ethics and cybernetics: Levinas reflection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2, 2000.
- Hans Küng(Ed.), *A Global Ethic for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 London: SCM Press, 1997.
- Fred W. Clothey, *Religion in India*, New York: Routledge, 2006.
- MacKinnon Barbara, *Ethics Theory and Contemporary Issues*, New York: Wadsworth Publishing, 1995.
- Panikkar, Raimon, *Pluralism and Oppress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_\_\_\_\_, *Cultural Disarm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_\_\_\_\_, *Intra-Religious Dialogue*, New York: Paulist Press, 1999.
- \_\_\_\_\_, *Mysticism and Spirituality*, New York: Orbis Books. 2014.
- Ross, W. D., *The Right and the Good*, Oxford: Oxford Press, 1930.
- Shinnyo-en, *Starting Out-An Introduction to Shinnyo Practice*, Tokyo: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 Shinnyo-en, 2010.
- \_\_\_\_\_, *Morning & Evening Chanting*, Tokyo: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 Shinnyo-en, 2011.
- Tye, K. A., “Globalizing Global Education to Nurture World Citizens,” *Education Digest*, Vol.69, No.4, 2003.
- White, P., *Civic Virtues and Public Schooling: Educating Citizens for a Democratic Socie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6.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Outspreading Virtues and Enlightenment Teaching Related to Daesoon Thought and Shinnyo Thought

**Kim Yong-hwa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comparative relationship between mutual cooperation of the *Dae-soon* thought of *Dae-soon jinrihoe* and *Shinnyo* thought of *Shinjo Ito*. *Dae-soon* thought focuses on outspreading virtues and enlightenment teaching based on the saying of *Jeong-san Sang Jae*'s Mutual cooperation without any grudge. According to the Buddha's nature thought of *Shinjo Ito*, '*Dharma kāya* resident' is the source of touching upon buddhahood. The *Shinyo-en* is an outward manifestation of their deep resolve to help others by cultivating spiritual faculty and mind session.

First, we can find the virtue action theory in the mutual cooperation of *Dae-soon* thought and the virtue nature theory in the *Shinnyo* thought of *Shinjo Ito*.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ationship, it was *Jeong-san Sang Jae* who laid foundation for the Posterior Grand Renewal. His idea is that the universe should be completed through the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earth and men following the Posterior Grand

Renewal. It was Kyodoin-sama who laid the foundation for identifying the place *Shinchoji* was established. It was at the time that the power we call *bakku-daiju* as *transversality* and Shinnyo spiritual faculty were perfected through *Shindoin-sama's* passing.

Second, based on *Jeon-kyungn* or *Dae-soon Ji Chim*, outspreading virtue is to awaken mutual cooperation without any grudge and the enlightenment teaching to practice according to mutual cooperation principle without any deceit toward one's own self. No deceit toward one's own self is to be sincere, to be respectful and to be faithful in *Jeong-san Sang Jae*. In the different context of Mahayana Buddhism, we can be aware that the immortal resident immortal of Dharma kāya is the source of permanent bliss in the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 Sūtr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ationship to pray toward *Jeong-san Sang Jae* and to participate in the Posterior Grand Renewal is to take part in *Cheonji-Gongsa*. It is a similar phenomena to be reflected suchness reality before the three personifications of buddhahood and the Shinnyo Stupa is the same meaning as meeting the ever present Buddha. Both of them, they focus to find religious altruism from real possibilities of mutual support. They argue that to dispense with altruism is to dispense with Sang Jae or Dharma for the divine transformation of human possibilities

Third, Everybody possesses unique and wonderful abilities to be unified with *Jeong-san Sang Jae*. If we seek happiness by trying to get by without making much of an effort to take part in *Cheonji-Gongsa*, it will be difficult to attain the harmony and peace of mankind with outspreading virtues and enlightenment teaching. In the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 Sūtra*' tells us 'all sentient beings have Buddha nature' that could be the possibility to the fulfillment of

buddhahood in the spiritual practice. From the comparative relationship, we can strive with open hearts and minds, in efforts that benefit others, and in ways we can work together to build a word of joy in which everyone can have an opportunity to cultivate spiritual faculty. This is based on mutually beneficial voluntary focused our principles into practice the spirit to build a mind session of *Shinnyo* as the civic clean precepts of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 Sūtra*'.

Fourth, the disciples of *Jeong-san Sang Jae* are encouraged to acquire the Mutual cooperation manner of being considerate. It is important to accumulate virtue action by daily effort. It is the contrast to awaken virtue nature by daily practice. The Buddha's nature thought of *Shinjo Ito* is based on the thought of *Mahāyāna Mahāparinirvāṇa Sūtra*. It can be supported by the *Shinnyo* parents and the two *Dojis* to build a world of joy as the light dharma descending and the emphasis of *Tathatā* spiritual faculty. It's not that we can't do something we haven't attained a higher spiritual level. What counts is our continuous effort, act so we can cultivate our spiritual faculty through the way of mind session.

**Key words** : *Jeong-san Sang Jae*, *Shinjo Ito*, mutual cooperation, outspreading virtues, enlightenment teaching, cultivating spiritual faculty, mind session.

◎ 투 고 일 : 2015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5년 7월 24일~8월 5일

◎ 게재 확정 일 : 2015년 10월 6일